

다. 그래서 시영리가 끝난 다음에 성령 소책자를 하고나서 기본적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훈련을 시켜 나갔다. 우리는 3개월의 기초과정과 3개월의 운영과정과 3개월의 실천과정의 9개월의 과정을 해야 기본 과정이 끝난다.

이 기본훈련을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3개월 동안 공부하고 로마서를 3개월 정도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실천과정에서는 일대일 양육하는 법을 훈련시킨다. 지금 우리는 6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날에는 10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올려면 적어도 집에서 9시 30분쯤에 떠나야 한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5시쯤 된다. 어려운것 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거의 100%가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9개월 기본훈련을 받으면 6개월 지도자 훈련을 받고 영적은사 훈련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우리교회는 실제로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하도록 해주면서 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받았던 훈련들을 간증도하고 가르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매뉴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약 2년정도의 프로그램은 거의 완벽하게 갖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금년 여름쯤에 70가정을 훈련하고 난 뒤 정식으로 문을 열것이다. 그 후에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아무나 올 수 없다. 왜냐하면 훈련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사람외에는 아무나 교회에 못오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훈련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방을 해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코스를 다 이수해야 한다. 그래서 9개월 코스가 항상 계속된다. 이 과정을 마쳐야만 우리 교회에 정식 교인이 되게 되어있다.

이것이 연애인 교회 7년, 영국에서 3년 동안에 나름대로 연구 하고 경험하고 생각한 제자화 훈련이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실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국내의 성경공부 교재 분석

이 승 장 목사
(E. S. F. 대표)

필자가 대학 3학년때 광주의 U. B. F. 라는 단체에서 사라벨 이라는 여성교사가 인도하는 성경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어린시절 가졌던 신앙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먼저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 친구들, 후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내가 군대를 제대하던 1976년도에 서울대학 문리대 근처에서 U. B. F. 모임의 책임자로서 성경공부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때 필자는 I. F. E. S. 의 성경공부 간사이었던 에들럼이라는 하와이계 선교사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약 6개월 정도 성경공부 훈련을 받은적이 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와 또 고등학교때에 성경공부라고는 한번도 해보지 못한 한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으므로 선교사들을 통하여 처음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을때 받은 충격은 매우 큰 것이었다. 옛날에는 복음서와 같은것을 공부할 적에 그저 이전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하고 말았지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 그 속에 숨겨진 비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전에도 많은 책을 읽어 본다고 했지만 어떤 책도 그때 성경이 주었던 감격 이상의 감격을 맛보지 못하였다. 나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고, 증거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때 이후 부터였다.

주로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곳에서 약 10여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 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철학 강의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변화 시킬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役事)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르쳐 오면서 얻은 중요한 교훈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여러 성경공부 교재에 대하여 독학도 해 보았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다. 1972년에 아시아 지역 학생운동 지도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성서 유니온의 한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 존 스타트 목사를 통해서 20일 정도 성경공부 훈련과 강해설교에 대한 워크샵(Workshop)을 가졌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되었다. 그 당시는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설교 스타일이 제복설교에 그치고 있었던 1962년도였기 때문에, 짧은 경험이었지만 다시 한번 성경공부의 귀중성을 알았고 또한 한국교회를 섬기는데 성경공부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또 '목회에서 양떼된 신자들이 성경을 스스로 사랑하고, 또 성경대로 생활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 목회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성공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목회자 자신이 성경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성경대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가 돌보는 양떼가 참으로 말씀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선교단체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동안 선교단체가 우리나라 교

회에 좋은 영향을 주었지만 악영향도 많이 끼쳤고 상처도 많이 주어 왔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보면서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로 끝나야지 그것이 교회화 되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가 하는 단체에서는 모이던 모임들을 없애버리고 금요일날에 Chapel 형식으로 바꾸었고, 또 캠퍼스 안에서의 활동에만 관심을 주고 교회를 바로 섬기는 선교단체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이 모임을 섬기고 있다.

이 모임에서 학생들에게 특별히 윌리엄 헬프스의 말을 가끔 인용하곤 한다. 그는 전에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인데 "나는 남자나 여자나 대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는다. 그러나 나는 대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배우지 않고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라고 말했다.

어느날 길을 걷다가 한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미소를 띠면서 "우리 아들이 서울 대학에 합격 했다."고 하면서 기쁨이 그 얼굴에 가득해 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적지 않은 서울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한가?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애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병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윌리엄 헬프스에게는 자기에게 딸이 한명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이 딸에게 대학교육과 성경공부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자기는 딸에게 대학교육을 포기하게 하겠다고 했다. 왜 예일대학 총장을 지낸 대 석학(碩學)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교훈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 이천년간의 세계사를 살펴 본다면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들이다. 가장 사람답게 살고있는 나라들이라면 주로 북 유럽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나라들을 중심한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모두 이런 뿌리에서 생긴 나라 들이다. 그런데 같은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남쪽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곳의 문화권인 남미의 여러나라를 비교해보면 그 문화의 질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과 인류사회에 공헌을 한 정도나 지금 그들이 살고있는 모양을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칸톤(Canton)이라는 여러 독립된 주로 되어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칸톤과 그렇지 않은 칸톤과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 모든곳에서 볼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이시대에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시대를 섬겨야 할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해도 아깝지 않은 일은 바로 성경으로 이 백성들의 정신적인 기초로 삼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일제시대에 비록 무교회 주의자 였지만 누구 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김교신(金敎臣) 선생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위에 기초한 백성이 되게하는 이일에 일생을 헌신 하였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서한국의 그런 소망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생활하도록 돕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미 영국과 같은 나라는 16세기때 성경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존 구인(John Guin)이라고 하는 역사가의 책에 보면, “영국은 이미 16세기에 책의 사람들이 되었으며 그책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였다.

빅토르 위고와 같은 프랑스 작가는 그것을 부러워하며 말하기를 ‘영국은 두권의 책을 가진 나라이다. 그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셰익스피어(Shakespeare)이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으나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다.’ (England has two books, the Bible and the Shakespeare, England made Shakespeare but the Bible made

the England.”) 고 했다.

이후 영국 사람들이 인류사에 큰 공헌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볼때 오늘날 비록 많이 타락하고 많이 세속화 되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됨됨이나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나라가 얼마나 사람답게 살고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된다. 그것이 모두 성경을 통해서 된것이다. 한국기독교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물러오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는 이들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그들의 가정에서의 삶이 바뀌어지고, 직장에서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모든 지역에서의 삶이 바뀌어지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때 성서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1990년도 까지는 아마 한국인구의 50%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정치문제, 경제적 압박, 남북 문제 등등 많은 여러가지 요소로 매우 긴장하고 짓눌리며 불안해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시련을 사용해서 이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교회로 들어오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때야 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이다. 이 사람들을 그냥 연약한 짐승이 신자로만 있게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잘 키워서 튼튼한 재목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이기도 한다.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으로 시작했고, 또 사경회를 매우 열심히 하던 백성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경회 시대가 민족이 많은 시련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흥회의 시대로 넘어갔으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로 들어오면서 부터는 다시 한번 사경회 시대의 꽃이 피고 있다. 과거의 설교중심의 목회가 이젠 완전히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너무나 교회는 커져 버리고 그들을 먹이기에는 목회자 자신부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성경으로 양떼들에게 먹여야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발맞추어서 제목설교에서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로 점차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에 있어서는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려고 하는 평신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목회하는 교회에는 젊고 지식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목사라고 하는 직함만 있으면 양떼들을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우리들 자신이 우선 목회자로서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며 성경을 가르칠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킬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짧은 시간의 한 두가지 강의를 듣고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간을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한국의 신학교육은 성경공부에 기초한 신학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나가서 목회를 하려고 할때 참으로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우리가 선교단체에서의 잘못된 점들은 버린다고 하더라도 좋은 점은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내에서 성경공부 그룹을 이루어 나가야만 한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침례교회가 제일 성경공부를 잘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어느나라에 가서 보더라도 침례교회들은, 평신도 성경공부 교재와 그 사람들이 또 리더(Leader)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있어서 제일 앞서지 않나 생각한다. 요즈음 침례교회에서 나오는 교재들은 장로교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다. 사실 침례교회의 교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앞서고 있는데, 이것은 교단적으로 그런 성경공부의 방향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글에서, 목회자는 성경공부를 가르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 땅위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성경공부의 목적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데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성경공부는 몇 가지 중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는데 이 성경은 매우 유익하다.

우리 한국 사람은 전도할 때 일반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거나 어떤 혜택을 베풀어 주면서 전도를 한다.

그러나 다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 줄 내가 알거니와”(요한복음 5 : 39)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오랜 신앙 경험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이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베드로전서 1 : 23) 고 말하므로써 신자들이 거듭나는 중생도 성경의 말씀으로 된다고 하였다. 자신이 처음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 교회의 기초를 잘 닦고 나니 그 후에야 비로소 바른 전도가 되더라고 말하였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르게 까지 한다. 그래서 성경공부를 할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진리를 깨닫게 되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는 데 까지 이르도록 도우는 것이 바로 말씀 공부의 목적 이다.

또 히브리서 6장 2절에서는 ‘완전한데로 나아갈 지니라’ 고 하였다.

성경공부의 목적은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게 하는데 있다. 성숙은 무엇 보다도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지적인 면에서와 윤리적인 면에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바른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귀한 것과 천한것의 차이를 분별할 줄도 모르기 때문

에 이단으로 흘러가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성을 갖춘 신자를 길러내어야 하며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도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 내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할 때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대답하기 힘든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 그럴때 그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대답 못하면 잘못 되고 혼동될 것이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하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수가 있겠는가? 예수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신봉하고 있고, 부모님은 기독교를 믿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믿는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알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도 되고 하나님이 되느냐? 어떻게 세분이 한분이고 한분이 세분이 되며 삼위일체가 어떻게 가능한가? 등등의 이들이 묻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 해주는 데는 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성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인은 심방하는 것 등의 몸으로 하는 일은 매우 잘 하지만 머리 쓰는 것은 아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단지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 다 한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자녀들이 그런 머리를 쓰는 어려운 질문을 하면 “네속에 마귀가 들었나 보다 가서 금식이나 해라”고 하거나 얼버무려 버린다.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서양의 종교 개혁자들이 제몽주의 이후로 점차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머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험위주의 신학 때문이었다. 기독교인들이 머리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 비기독교인들 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라서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되고, 정신계와 지성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되고 보니 어느새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무너지고 휴머니스트의 세계관이 윗자리에 서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서양에서 기독교인들

이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기독교 사상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회가 부흥된다고 하지만, 만약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적인 면에서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다음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각을 사용할 줄 알도록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아마 우리 한국 신자처럼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것이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요, 공부하는 종교이다. 오늘날의 대학은 사실 그 기원을 기독교의 교육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12세기 이후에 중세 교회에서 부터 대학이 생겼고 학문도, 과학도 그렇게 생긴것이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진다고 철야하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지금의 큰 발전도 나중에 모래위에 세운 집이되고 만다. 우리민족의 저변에 깔린 사상은 유교사상인데 이런 유교사상이 우리문화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유교의 경전을 완전히 암기하면서 그들의 그 문구(文句)들을 쓰면서 살았던데 있다. 아주 쉬운 말도 어려운 소위 유교경전의 문자를 쓰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이룰처럼 그렇게 외울 정도로 공부하고, 성경의 문구를 생활 가운데서 사용한다면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혁이 없고서야 기독교 문화는 일어날 수가 없고 기독교적인 사회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삶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히 가르쳐서는 안된다. 한국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지적하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 A를 말하기 위해서는 non A를 말해 주어야만 한다. 기독교와 불교, 유교, 도교, 사머니즘을 분명히 구별하여 주어야 한다. 물론, 유교와 불교와 유사한 점을 가질수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바른 진리에서 출발한 것인지 잘못된 이교에서 출발점을 가졌는지를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한다. 기독교 백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의 기독교는 매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손가락질 내용은 한마디로 윤리적인 면에서 형편없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기독교의 놀라운 윤리수준에 비하여 한국의 현실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이다.

서양의 경우에는 간음을 했다고 하면 조금 관용을 베풀어 주지만 거짓말은 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아주 용서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인들, 심지어 목회자들은 너무나도 거짓말을 쉽게 하고 있다.

적어도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성경을 유익하게 잘 가르쳐 주는 것 이상의 전도 방법은 없다. 이런 방법의 전도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필자는 선교단체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또 삼년정도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체험했다. 평신도 구역장 몇 사람에게 준비 공부를 시키고 나서 이들이 가서 가르치게 했더니 그들이 이 일을 잘 해 내는 것을 보았다. 마치 선교단체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캠퍼스에 가서 가르치며 전도하게 하는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이들은 처음에 주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들이 이렇게 구역에 가서 전도할때 그것이 모두 훌륭하게 결실을 맺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의 평신도의 수준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까지 올라오게 해 주셨다. 지금 이 평신도들만 잘 교육시키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전도를 위해서 성경공부가 아주 좋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에 몇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역할과 이성의 적용 문제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과 지식의 관계성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공부를 하다가 잘못하면 주지주의 (Intellectualism) 에 빠지게 되지 않나 걱정을 한다. 그래서 성경공부하기를 멀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재미로만 하지 않고 진지하게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 하실 것이고, 교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공부를 하면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지면 목사를 대적하지 않을까 염려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만일 이런 걱정 때문에 성경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염려한다면 목사직을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성숙해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신도들의 지식이 많아진다고 목회자가 더 어려워 질 수는 없다. 성경지식이 많아질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이가 더 넓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공부의 방법

성경공부 방법의 문제는 그 성경공부가 먼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인이나, 가족이나, 그룹이나, 또 그 그룹이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냐, 소 그룹으로 할 때냐, 등등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성경공부 방법은 크게 주제별 성경공부와 본문 중심의 성경공부로 양분할 수 있는데 주제공부라는 것은 연역적인 방법을, 본문 중심의 성경공부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한다. 각 선교 단체에서 나온 교재는 주로 전자에 속하며, 또 이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존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구절들을 여기저기 따와서 조직신학적으로 공부하고, 또 '신앙' 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공부하고 '윤리'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공부하는 이런 방법이다. 이것은 요즈음 나오는 엠마오 성경주석과 톰슨 성경주석등과 같이 주제하나를 주며, 그것에 대하여 창세기 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를 다 찾아보는 것이다. 또, 성구 사전 (Concordance) 형식의 성경공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주로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공부나 신학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성경을 가르칠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성경공부를 한다고 하면 주로 조직신학의 한 부분인 신론(神論), 구원론, 기독교론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공부란 것이 정말 재미없고 딱딱한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먼저 심어 놓았다.

또 이 방법에는 다윗, 바울, 모세 등등의 인물 중심의 주제별 공부도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윤리적인 것들 즉 전쟁, 임신중절, 산아제한의 중요한 문제들을 공부할 수도 있다. 그 내용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방법은 모두 연역법적인 방법이 동원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된 성경공부는 바로 본문 중심의 성경공부이다. 성경공부라 하면 성경본문공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성경의 본문속에 나타나 있는 사실들을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유도하는 귀납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특별히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신자들에게 제일 도움을 주는 방법이 귀납법적인 방법이다. 요즘 학생들은 과학의 기초가 되는 귀납적 방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리가 귀납적으로 회전 된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 볼때 먼저 이 본문의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먼저 살펴 보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어떤 뜻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해석(Interpretation)하는 것이 두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진리에 기초하여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Application) 되는가 하는 세가지 과정의 귀납법적인 공부를 한다.

사실(Fact)에서는 시간, 장소, 상황, 숨어있는 사실, 등장하는 인물, 사건, 결과, 단어 반복되는 단어, 비교, 대조, 차이 등등 여러가지를 살펴 보는 작업을 한다.

해석(Interpretation)에서는 이것들이 주는 의미를 찾는 것인데 이것들의 뜻을 찾는 것이다.

적용(Application)은 해석의 단계에서 살펴본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이나 내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단계이다.

이것이 귀납법적 방법이다. 그런데 공부를 해나가려고 하면 교재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재란 것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공부를 처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일을 한다.

성경공부 교재의 필요성

수업을 배우려면 그 수업의 기초를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교재도 그 기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 때문에 교재는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에 있어서 교재를 만든 사람은 그 눈들이 실제적인 경험과 많은 연구 끝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훈련시켜 주므로 새롭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새로움이 없을 때 성경공부는 지루하게 된다. 성경공부는 암시공부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윗이 말한대로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과 같이 성경공부가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 재미만 붙여 넣어준다면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의 많은 부분을 이미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성경교재가 없으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읽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편식하게 된다. 즉, 체계적으로 성경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재는 필요한 것이다. 또, 신학적인 기초를 잘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또한 적용의 범위를 넓혀준다. 적용을 나의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 국가, 인류의 문제로 까지 넓혀주게 된다.

성경공부 교재의 위험성

그러나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할때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경보다 성경공부 교재에만 더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반 신자에게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수 있는 위험이다.

두번째는 그 교재를 만든 사람의 생각에 너무 제한될 염려가 있다. 저자의 신학이나 교파등 파벌의 영향에 감염되어질 염려가 있다. 예를 들면 순복음에서 나오는 교재는 매사를 성령님과 축복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래서 성령님도 지나치게 강조하고 축복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치우치게 된다.

또, 세번째는 너무 교재만을 딱딱하게 이용하게 되면 생동감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끝나버릴 위험이 있다.

성경공부 교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재는 그 개인이나 그룹에 맞게 연구하여 목회자 자신이 만드는 것이 좋다. 특별히 자기 교회만의, 자기 그룹만의 특별히 절실한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야 하며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되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의 해결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 교회의 사람들에게 맞는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먼저 자신이 직접 여러 교재들을 참고하여 자신이 만들어 보라. 그리고 난 후에 자기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아주 공부하는 재미있고 목회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도 생기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약간의 훈련을 쌓으면 더욱 훌륭하게 될 것이다.

좋은 교재의 평가

필자는 좋은 교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성경본문에 기초한 것이 좋은 교재이다. 이런 방법의 성경공부는 먼저 공관 복음서나 역사서로써 시작하는 것이 공부하기가 쉽다. 그리고 교재를 직접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공관복음서나 역사서를 만드는 것이 다른 여러 시편이나 서신으로써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구약의 역사서는 주로 사건을 종합하는 형태로 하면 문제가 간단해진다.

그러나 로마서와 같은 것은 종합보다는 하나 하나의 뜻과 한 구절 한 구절의 뜻 등을 분석하여서 맨 마지막에만 종합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로마서는 자세히 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구약은 좀 빨리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분량을 많이해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먼저 성경공부 교재 만들기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마가 복음과 같은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지성인 그룹에 있어서는 주로 창세기 공부를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프란시스 셰퍼(Franis A. Sheffer) 박사도 말했듯이 현대는 무신론적인 교육에 너무 익숙해 있으므로 정면에서 도전하는 창세기 공부는 큰 효과가 있다. 처음에 우리 모임에서 어떤 분이 미국의 '전도폭발 훈련'에서 훈련 받은 대로 '영생을 받았습니까?' 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시작했더니, 서울대 학생들은 모두 웃어버렸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그렇게 절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앞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 하며, 너는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부터 도전하여 자극을 주어서 그 위에 예수님을 심을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실제로 많이 보아오고 있다.

둘째로, 신학적 입장이 분명해야 좋은 교재이다. 바른 성경 해석학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재가 너무 장로교적으로만 나오는 것도 좋지 않다. 나도 장로교 목사이지만 장로교만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 문제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강조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칼빈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요한 웨슬레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반면 웨슬레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양자가 어느편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보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만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선택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호하리라고 하여 그것만 강조하고 우리 인간편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간과 하는 것은 큰 잘못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성경공부 교재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때 어떤 교재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교재는 인간의 노력만을 강조하므로 늘 전도만 강조하는데 이것도 역시 위험한 것이다. 전도도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만 강조하는 균형잡힌 신학적인 입장이 나

와야 한다.

세째는, 신자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까지 다루어진 것이면 좋다. 우리 한국에는 번역을 한 책들만 많이 나돌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의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교재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다. 한국의 선교단체에 있는 교재들을 살펴보면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 C. C. C. 는 전도, 내비게이토는 순종, U. B. F. 는 해외선교 등만이 강조되어 있고, 교회생활에 너무나 빈약하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의 건설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가운데 전도와 선교와 순종은 중요한 한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다. 모든 것들을 그러한 점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한국에서 필요한 성경공부 교재는 무엇보다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 우리들사상에 포함돼 있는 우리의 잘못된 교훈과 혼란된 사고들을 깨우쳐 주고, 잘못된 삶을 지적해 주는, 이러한 교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즉, 짧은 전통의 한국의 신자에게와 오랫동안 이교에 젖었던 한국인에게 그 문제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지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병이 들었을때면 항상 하나님에게 벌 받은 것인줄로 생각하거나, 예수를 믿지만 또한 팔자와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의 잘못을 교정시켜 주는 그런 교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양사상의 운명과 여러가지 잡다한 사상들과,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어려운 것중의 하나는 우리의 인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문제이다. 우리 한국 신자처럼 다른 신자들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바로 맺을 줄 모르는 신자가 별로 많지 않다.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같은 신자끼리 이렇게 다른 교파로 나누어져 나누

어져 있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은것 같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터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유아기에 교회내의 한 그룹으로 데려가서 이 그룹에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가지고 노는 훈련 부터 받게 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훈련을 받게 한다. 이러니까 이나라는 전체적으로도 더불어 살 줄을 알지만 우리는 나혼자만 잘살겠다고 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겠다고, 내 집만 잘살겠다고 하자 우리 같이 잘살아보자, 우리백성 다같이 잘살아보자, 한국 기독교인 전부가 잘 살아보자 이런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점에 대한 문제 의식을 던져주는 질문이 나와야 한다. 성경에서 공동체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 요즈음 한국에 만연해 있는 배금주의(拜金主義) 우상이다. 바알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 우리 한국의 혼합종교적인 사상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공부 할 때 혼합종교의 위험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윤리와 사상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있는 그런 교재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실제로 목적과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사용할때 적절하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현행 한국 성경공부 교재를 평가하고 분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평가

한국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교재는 C. C. C. Navigators 이런류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두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 주제별 성경공부 교재로는 C. C. C. 의 열단계 성경공부 교재, 전도용으로는 사영리(四靈理) 등의 교재가 있다. 그런데 나는 사영리로서 전

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 왜냐하면 사영리는 무엇보다도 회개의 교리가 결핍해 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다. 회심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어야 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3년간 가르친 것을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가르쳤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회개가 빠져 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의 잘못되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출발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인(否認)과 증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무서워 할 줄도, 증오할 줄도 모르는 신자가 되어 버리고 만다. 이런 점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들도 성경의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기들의 교리적인 것만으로 가르쳐 놓는 구교에서처럼 몇몇 선교 단체에서도 자기들의 교리만 가르친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만 한다. 신앙이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고 대화하는 것 위에서 성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론 기독교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존중을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도와주는 성경공부가 절실히 필요하다. 교리적인 면에서 주제별로 볼 때 C. C. C. 교재나 네비게이토 교재는 둘다 훌륭한 교재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네비게이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열단계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6단계는 모두 좋은 교재이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네비게이토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론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데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런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조금씩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국인이 집필한 교재로는 침례교에서 나온 「새신자 훈련총서」라는 매우 좋은 책이 있다. 이 책은 모두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면서 본문을 잘 인용하고 있는 교재이다. 또 두란노 서원에서 「주제별 성경공부 100주제」라는 O. M. F. 선교사의 책을 번역한 것이 있다. 이것은 주제별 성경공부로서는 아주 좋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베델 성경공부는 본문연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책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빈약하다.

또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일년 동안에 성경전체를 다 보게 된 것과 일년 동안에 성경교리를 모두 할 수 있게 된 책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재에 대한 평을 덧붙인다면, 거의 대부분 외국책의 번역이라는 점에서 보이듯이 이 모든 교재에서 아쉬운 것은 한국적인 것이 없으면 하는 것이다. Text는 좋지만 Contex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본문공부에 있어서는 경건 시간(Q. T.)나 Group Bible Study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평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U. B. F. 의 「일용할 양식」, E. S. F. 의 「일용할 양식」 등이 있다. 이 「매일성경」과 「일용할 양식」은 같은 형태로 출발한 것이다.

물론 지금은 그 형태가 조금씩 달라졌지만 「일용할 양식」은 본문을 차례로 나눴고, 「매일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행해야 할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는 책이다. 그러나 이 양자중에서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는 「매일성경」이, 그리고 대학부임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본문 연구성경공부 교재중에 「젠센 시리즈」 40권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성경공부 하기에는 좋으나 그룹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평신도 성경 자습교재」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디출판사의 Teach-yourself the Bible 시리즈를 번역

한 것이다. 현재 복음서만 나와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책이다. 그리고 「새 성경공부 교재」라고 하여 장로교 개혁 측의 총회 교육부에서 마가 복음과 요한복음만 나왔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만을 할 때 그 책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두란도 서원에서 나온 「새 생활 공부교재」란 것이 있는데 필자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분량이 다소 많아서 그룹으로 사용할 때는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書

評

■ Wolf-Dieter Marsch: *Zukunft* /141
이 보 민

■ J. B. Rogers: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154
이 환 봉

■ Conelius Jaarsma: *Human Development* /165
김 용 섭